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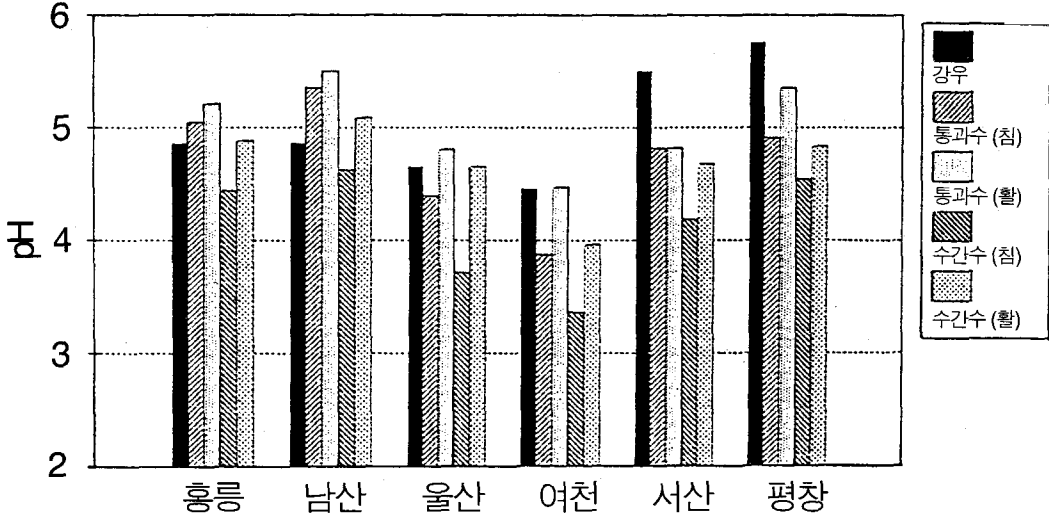
환경오염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

산림청 임업연구원은 환경오염 특히 강우의 산성화에 의한 산림의 쇠퇴가 전 지구적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이후 최근 우리나라 강우도 점차 산성화되고 있어 주요 산림지역에 대한 임내에서의 강우의 특성 및 토양특성변화등 산림쇠퇴도를 조사 발표했다.

산림청 임업연구원 대기오염연구실에 의하면,

- 우리나라 주요산림내 강우의 특성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시(서울 흥릉), 공단(울산), 산악(평창) 지역으로 구분, 참나무림과 소나무림에 대해

서 강우의 산도변화를 측정된 결과, 강우산도는 산악지역에 비하여 도시와 공단지역에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, 강우가 소나무림의 수관층을 통과하면서 일반 강우에 비하여 최고 pH 1 가량 낮았고, 참나무림의 경우는 수간수 pH가 일반강우에 비하여 pH 1-2가량 낮았다. 이러한 결과로 산성강하물이 수간수를 통해 장기간 토양에 유입되면, 토양산성화가 가속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.



산림병해충 총력방제추진

산림청은 당면한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하여 전국 277개 산림관서에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를 설치('95. 6. 1~8. 31) 운영하면서 총 277천ha의 방제사업에 440억을 투입(국고 192억, 지방비 기타 248억 원) 총력 방제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- 우리나라 산림병해충의 종류는 약 1,760여종으로 그중에서 솔잎혹파리등 10여종이 전국산림 6,460천ha중 354천ha(5.4%)에 적극적인 방제로 '88년말 463천ha 대비 109천ha(24%)가 감소되었다.
- 그중 가장 피해가 심각한 솔잎혹파리는 '89년부터 집중 방제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발생면적이 '94년말 현재 212천ha로서 이는 '88년말

발생면적 327천ha 대비 115천ha(35%)가 감소되었으며 흰불나방등 돌발해충도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.

- 한편, 산림청이 밝힌 '95년도 방제계획을 보면 - 총 방제대상 277천ha에 440억원을 투입, 수간수사등 화학적방제 225천ha, 천적방사 등 생물적방제 6천ha, 항공엽면시비등 임업적방제 46천ha를 실행할 계획으로서
- 특히 가장 피해가 심각한 솔잎혹파리의 경우 312억 원(국고 159억, 지방비 153억)을 투입, 수간수사, 항공시비, 천적방사등 102천ha를 실행 계획하고 이중 피해가 심한 강원도지역에 전국 방제물량의 68%인 69천ha를 배정 방제작업에 착수하였다.